

# 체인 수식 부사에 대한 연구\*

목지선(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체인 수식 부사의 유형    |
| 2. 체인 수식 부사 판별 기준과 목록화 | 4. 체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 |
| 2.1. 체인 수식 부사의 판별      | 5. 결론              |
| 2.2. 체인 수식 부사의 목록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체인 수식 부사들을 목록화한 뒤 이들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체인 수식 부사의 유형별 특징, 부사가 체인을 수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체인 수식 부사는 9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적된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게다가 연구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체인 수식 부사’라는 명칭을 비롯해 품사적 범주, 피수식어인 체인의 유형, 의미·통사·화용적 특성과 기능, 부사가 체인을 수식하는 현상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정확한 개념 규정과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어휘를 목록화하지 못한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사 용법과 관형사 용법을 모두 가지는 것을 체인 수식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 기존 연구에 제시된 체인 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401).

식 부사 목록 중 부사 혹은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휘들을 제외시키고 체언 수식 부사들을 목록화하였다. 그리고 그 목록을 대상으로 의미와 피수식언을 대상으로 유형화하고 특성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했다.

주제어 : 부사, 관형사, 품사, 품사 통용, 체언 수식 부사

##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부사로 쓰이면서 동시에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체언 수식 부사’<sup>1)</sup>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 유형과 기능적 특징,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해서는 최현배(1937)에서 언급된 이래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해 축적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이들의 품사 설정이나 공통된 의미 특성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연구자마다 체언 수식 부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품사에 관한 논의만 해도 양태 관형사, 정도 관형사 등 관형사로 보는 견해<sup>2)</sup>와 부사의 특이한 쓰임으로 보는 견해<sup>3)</sup>로 나누어져 각자의 주장

1) 이 글에서 ‘체언 수식 부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들이 관형사임을 부정하고 부사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은 이들의 품사적 지위를 규정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탓에 통용되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2) 이수미·김민국(2009)에서는 이들을 ‘양태 관형사’로,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정도 관형사’로 보았다. 이 외에도 체언 수식 부사를 관형사로 본 연구로는 문순

만 거듭하고 있어 그 명칭 문제마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수식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정도성이나 지정성, 혹은 수량, 척도, 관계, 위치, 상태, 시간, 거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생략, 어순 바꾸기, 어근 분리 혹은 인접성, 의미적 관련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일부의 예들에만 적용시켜 성급하게 일반화 하거나 치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한 논의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언어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정 기능과 의미를 담당하던 어휘소가 다른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능 변화와 더불어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글은 체언 수식 기능을 하게 된 부사가 여전히 부사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관형사의 범주에 편입되는지에는 크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부사의 기능과 관형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체언 수식 부사라는 범주를 놓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들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들을 관형사로 보아야 하는지, 부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 언어 요소의 기능이 변화한 경우 그 대상에 집중하여 특성을 밝히거나 왜 언어 체계 안에서 이러한 변화나 현상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언어 현상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태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홍(1990), 임유중(1999), 이관규(1999), 장영희(2001), 민현식(2002)이 있다. 문순홍(1990)에서는 체언 수식 기능은 관형사의 고유기능이므로 체언 수식 부사는 관형사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민현식(2002)과 임유중(1999)에서는 용언을 수식할 때는 부사로, 체언을 수식할 때는 관형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체언 수식 부사를 부사로 보고 부사의 체언 수식 현상을 예외적인 것으로 다룬 연구로는 최현배(1961), 김민수(1986), 김경훈(1995),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 이규호(2008) 등이 있다. 김민수(1986)에서는 부사의 체언 수식은 의미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파악했으며, 김경훈(1996)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는 부사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규호(2008)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를 관형사로 보게 되면 품사통용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둘 사이의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 2. 체언 수식 부사 판별 기준과 목록화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체언 수식 부사의 판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적용하여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체언 수식 부사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논의를 살펴보면 연구들마다 대상으로 삼은 어휘의 수나 종류가 다르고, 체언 수식 부사가 전체 부사 체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부사인지, 피수식어인 체언의 공통 특성이 무엇인지,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 또한 제각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체언 수식 부사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언 수식 부사의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 언급한 기존 연구로 이은섭(2011), 이공주·황선영(2002)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논의만 보더라도 관점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은섭(2011)에서는 체언 수식부사는 ‘관형어+명사’ 구성과는 달리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때 극심한 제약을 보이므로 통사적 단위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본 반면, 이공주·황선영(2005)에서는 명사와 같이 이동 가능하며 의문의 초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은섭(2011)에서는 체언이 참여한 조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는 제외시킨 반면 이공주·황선영(2005)에서는 이를 명사 수식 부사의 사용 양상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대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일치된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 외에 부사나 관형사로만 기능하는 예들, 심지어 용언의 활용형까지 대상으로 삼아 진행된 연구도 있으므로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체언 수식 부사의 특성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부사로서의 쓰임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체언을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관형사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체언 수식 부사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본다. 부사로 쓰이던 것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적 용법을 보이는 현상의 원인과 특성을 살피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인만큼 부사적 기능이 없거나 관형사로 쓰이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는 부사로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부사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은 체언 수식 부사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부사 중 수식 대상을 잘못 판단한 예들이 많은데 예문이나 수식 구조를 세심하게 살펴 체언 수식 기능 없이 부사로만 쓰이는 것들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1차 목록이 선정되면 이들이 체언을 수식할 때 보이는 특성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체언 수식 부사의 요건

##### ㄱ. 기본 요건 : 체언 수식 부사의 판별 기준

- 기능적 특성 : 부사적 기능과 관형사적 기능을 동시에 함.

##### ㄴ. 형태·통사적 요건

- 형태적 특성 : 불변어
- 통사적 특성 :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으로 쓰일 때

- 1) 부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관형사와 달리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음.
- 2) 관형사처럼 체언에 선행한 체언구 형태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음.

## 2.1. 체언 수식 부사의 판별

기존 연구에서 체언 수식 부사로 다루었던 대상에 기능적 특성을 적용해 일차적 목록을 추출할 것이다. 기능적 특성은 부사적 기능과 관형사적 기능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체언 수식 부사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들은 아래의 82개이다.

### <기존 연구에 제시된 체언 수식 부사 목록4>

가장, 거의, 겨우, 고작, 기껏, 그대로, 극히, 꼬박, 꼬르륵, 꼭, 꽤, 너무, 넉넉히, 노랗게, 다만, 다소, 단, 단연, 단지, 달랑, 대략, 대량, 대폭, 더, 덜덜덜, 돌연, 되게, 딱, 또, 마치, 무려, 멀리, 멀찌감치, 모두, 무사, 물경, 맨, 바로, 불과, 비교적,

반짝, 빨갭게, 소위, 심지어, 쉽사리, 스스로, 심히, 아주, 약, 약간, 어언, 외려, 워낙, 오래, 오로지, 오직, 완전히, 유독, 이른바, 자그마치, 잠시, 장장, 진짜, 전혀, 제일, 줄줄이, 진정, 천생, 천만, 최고, 총, 최근, 푸룽푸룽, 특별히, 특히, 풍족히, 한, 하나 한갓, 한낱, 한참, 훨씬, 향후(총 82개)

위에 제시된 82개의 어휘 목록에는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서 부사적 용법과 관형사적 용법으로 둘 다 쓰이는 것들만 체언 수식 부사로 본다고 하였다. 우선은 이 기능적 조건을 적용하여 부사적 용법이 없거나 관형사적 용법이 없는 것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1차적 목록을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용언이나 수식언,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은 하지 않고 오직 체언만을

4) 이 글에서 제시한 체언부사 목록은 이전 연구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금희 2014 인용.)

가. 최현배(1937/1982) 곧, 겨우, 넉넉히, 바로

나. 남기섬·고영근(1985, 1993) 겨우, 바로, 아주

다. 김선희(1985) 고작, 꼭, 바로, 더, 바로, 한갓, 한낱, 다만, 별로

라. 왕문용·민현식(1993) 겨우, 고작, 꼭, 다만, 단지, 똑, 맨1, 맨2, 바로, 아주, 오직, 유독, 진짜, 한참, 천생, 한갓, 한낱/근, 다만, 단, 무려, 딱, 불과, 약, 한

마. 김경훈(1996) 거의, 겨우, 바로

바. 이익섭·채완(1999) 꽤, 바로, 아주

사. 임유중(1999) 매우, 무척, 바로, 아주, 한갓

아. 황선영·이공주(2002) 가장, 거의, 겨우, 고작, 극히, 기껏, 꼭, 꽤, 다시, 단, 단지, 대략, 더, 딱, 또, 마치, 무려, 바로, 불과, 비교적, 소위, 심지어, 아주, 약간, 오래,

오로지, 오직, 완전히, 이른바, 자그마치, 잠시, 전혀, 제일, 특별히, 한낱, 한참, 훨씬

자. 이규호(2008) 거의, 겨우, 고작, 그대로, 깜짝, 꼬르륵, 꼭, 꼬박, 너무, 노랗게, 다소, 단, 단연, 달랑, 대략, 대량, 대폭, 덜덜덜, 돌연, 딱, 멀리, 멀찌감치, 모두, 무려, 무

사, 물경, 반짝, 불과, 빨갭게, 쉽사리, 스스로, 심히, 약, 어언, 외려, 워낙, 장장, 줄줄이, 진정, 천천, 천천만만, 최고, 총, 최근, 푸룽푸룽, 풍족히, 하나, 한갓, 향후

차. 이수미·김민국(2009) 겨우, 고작, 단지, 딱, 무려, 바로, 불과, 오직, 한, 한갓, 한낱

카. 황화상(2009) 겨우, 근, 무려, 바로, 아주, 약, 한낱..

타. 이은섭(2011) 거의, 겨우, 다만, 단지, 오직, 아주, 바로

파. 이금희(2014) 가장, 거의, 겨우, 고작, 곧, 극히, 꼬박, 꼭, 너무, 다만, 단지, 대략, 더, 되게, 딱, 똑, 무려, 바로, 불과, 소위, 이른바, 장장, 진짜, 천생, 한갓, 한낱, 훨씬

수식하는 것들은 부사로 볼 수 없고 관형사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예로는 “약, 장장, 한, 고작, 한낱, 한갓, 무려, 불과, 자그마치, 물경, 소위, 이른바, 맨”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위의 목록 중 사전에서도 관형사로만 제시되어 있고, 부사로 기능하지 않은 단어들을 살펴보겠다. “약, 장장, 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사전 제시 양상을 보면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라는 결합 조건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뜻풀이를 보면 ‘약, 장장’은 ‘그 수량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 ‘예상보다 많거나 깊’을, ‘한’은 ‘대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은 결합 조건에서부터 수량과 결합이 제시되어 있고 그 의미도 뒤에 오는 수량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형사로 봄이 옳을 것<sup>5)</sup>이다.

다음으로 사전에는 부사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체언 수식 기능만 하는 예들도 체언 수식 부사에서 제외한다. ‘고작’의 경우 사전에는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올라 있는데 명사적 용법은 ‘-은/는 게 고작이다’의 형태로 쓰이며, 부사의 경우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해도 별 것이 아니다”로 뜻이 제시되어 있다. ‘고작’이 부사로 쓰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ㄱ. 고작 밥에 김치가 전부냐?
- ㄴ. 고작 담배값밖에 남지 않았다
- ㄷ. 고작 2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1ㄱ~ㄷ)에서 ‘별 것 아닌 것’은 ‘밥에 김치, 담배값, 2만원’이며, ‘전부가 고작 밥에 김치, 남은 게 고작 담배값, 번 게 고작 2만원’으로 변형

5) 이들의 수식 대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장, 약, 한’ 등이 결합하는 대상은 ‘수 관형사 + 의존명사’ 혹은 수사이다. ‘수관형사 + 의존명사’가 후행하는 경우 ‘장장, 한, 약’이 수 관형사를 수식한다고 보면 이들을 관형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관형사 + 의존명사’ 구를 수식한다고 보면 관형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수사도 ‘수관형사 + 의존명사’로 환언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들이 수식하는 대상은 체언구라고 본다.

예) 학생 한 다섯이 필요해요 = 학생 한 다섯 명이 필요해요  
 일흔이 다 됐는데 건강하다 = 일흔 살이 다 됐는데 건강하다

이 가능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고작’이 수식하는 것은 명사나 명사구에 해당하므로 관형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작’이 부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용언과 결합해 ‘고작 전부이다, 고작 남다, 고작 별다’가 가능해야 하는데 명사가 생략된 이러한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고작’의 부사적 용법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한낱, 한갓, 맨6’)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려, 불과, 자그마치, 물경’ 등은 항상 수량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여 그 수에 대한 화자의 심리나 판단 등을 나타낸다. 사전적 풀이에 있어서도 ‘무려, 물경’은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 ‘불과’는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로, 그리고 ‘자그마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적지 않게’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관형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위, 이른바’ 등은 사전에 부사로 ‘세상에서 말하는 바’의 의미를 가진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행 명사나 명사구를 규정하고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언어 자료에서 ‘소위, 이른바’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가 작은따옴표로 표시되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2) ㄱ. 그의 결혼식에는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간부 등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ㄴ. 이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소위 귀부인 두 여자가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섰다

ㄷ. 나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큼직큼직한 돌맹이들로 다져진 옛 아피아 길을 지나서 이른바 ‘도미네 퀴바디스’ 교회를 지나고, 베드로가 갈혀 있던 ‘베드로의 샘’이라는 지하 감옥을 지나왔다

6) 사전에 제시된 ‘맨’의 부사적 용법을 보면 용언이 후행한 경우는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뻔, 만’ 등 ‘맨’과 호응하는 조사들이 체언 혹은 명사형에 결합한 것으로 보아 ‘맨’이 수식하는 것은 체언이나 체언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사가 아니라 관형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ㄱ. 들려오는 것이란 맨 좋지 않은 소식뿐이다.

ㄴ. 강연이랍시고 맨 뻔한 소리만 지껄이고 있어도..

다음으로 체언을 직접 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형사로 쓰일 수 없는 예들도 목록에서 제외한다. 우선 어근 뒤에 ‘하다’나 ‘되다’, 혹은 ‘이다’가 붙어 용언으로 쓰이던 것이 부사의 수식을 받다가 일정 환경에서 어휘적 의미가 없는 ‘하다’나 ‘되다’, ‘이다’가 생략되어 표면적으로 ‘부사 + 어근’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생략된 성분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도 체언 수식 부사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그대로, 다소, 단연, 돌연, 쉽사리, 잠시, 천만, 훨씬’ 등을 꼽을 수 있다.

(3) ㄱ. 편의점 향해 그대로 돌진. 가게 텅 도둑들

ㄴ. 봄철 제주, 평년 대비 비 적게 내리고 다소 건조

ㄷ. 공동 주택 활성화도 성동구가 단연 으뜸.

ㄹ. 美 맹비난하던 이스라엘 주재 중국대사, 돌연 사망

위에서 제시된 ‘그대로 돌진, 다소 건조, 단연 으뜸, 돌연 사망’ 등은 표면적으로는 부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그대로 돌진하다, 다소 안심되다, 단연 으뜸이다, 돌연 사망하다’에서 후행동사의 구성 요소인 ‘하다, 되다, 이다’ 등이 생략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면적 현상일 뿐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로 볼 수 없다. 이 외에 ‘쉽사리 접근, 잠시 휴식, 천만 다행, 훨씬 미인’ 등에 쓰인 ‘쉽사리, 잠시, 천만, 훨씬’ 등도 ‘쉽사리 접근하다, 잠시 휴식하다, 천만 다행이다, 훨씬 미인이다’에서 ‘하다, 되다, 이다’가 생략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7) 김원경(2013)에서는 ‘명사+이다’ 구성에 선행하는 것은 관형어이므로 이를 ‘관형성분+체언’의 확장된 명사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다’ 없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있으나 ‘이다’가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하고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는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없다. 아래의 예에서 ‘아주’는 명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므로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있으나 ‘훨씬’은 ‘훨씬 + 명사’의 형태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ㄴ)처럼 비교 구문에서 부사로 기능해야 쓰임이 자연스러우므로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없다.

예) ㄱ. 아주 부자는 아니야, 아주 부자를 만들어 줄게. 아주 부자도 걱정은 있지..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로 보인 ‘꼬르륵, 덜덜덜, 푸룽푸룽’ 등도 후행하는 ‘거리다, 대다, 하다’의 관형형이 생략된 구조일 뿐 이들이 직접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규호(2008)에서는 후행하는 접미사가 생략된 형태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아래의 예 (47~c)을 들어 체언 수식 부사로 분류했다.

- (4) ㄱ. 덜덜덜(거리는) 경운기  
 ㄴ. 푸룽푸룽(한) 나뭇잎  
 ㄷ. 꼬르륵(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의성어·의태어의 경우 ‘-거리다, -대다, -하다’ 등의 접사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하며, 어근만으로도 부사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성어, 의태어는 접사 생략형을 체언 앞에 놓고 대상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움직임이나 소리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강조하거나 표현 효과를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도치 현상일 뿐 체언을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 (5) ㄱ. 뒤뚱뒤뚱, 오리가 도로를 걷고 있다 = 오리가 도로를 뒤뚱뒤뚱 걷고 있다.  
 ㄴ.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ㄷ. 팔랑팔랑, 위낭소리가 울린다 = 위낭소리가 팔랑팔랑 울린다.

이때 의성어나 의태어 뒤에 습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후행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거의가 이런 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체언 수식 부사 목록에 넣었을 때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 
- ㄴ. \*훨씬 부자는 아니야, \*훨씬 부자를 만들어 줄게, \*훨씬 부자도 걱정은 있지  
 ㄴ'. 그 사람보다 보다 훨씬 더 부자는 아니야 / 부자를 만들어 줄게 / 부자도 걱정은 있지

그리고 용언 활용형에 부사 파생접사가 결합한 경우도 ‘극히’를 제외하고는 체언 수식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넉넉히, 특별히, 완전히, 풍족히, 심히, 특히’ 등을 체언 수식 부사로 보는 연구들이 있으나 체언 수식 기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고, 수식 대상에 대한 판단에도 무리가 있다. 아래의 예에서 ‘풍족히’와 ‘완전히’가 수식하는 대상은 ‘복’이나 ‘분리’가 아니라 ‘주시다’와 ‘분리를 하다’<sup>8)</sup> 등 동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6ㄷ, ㄷ')의 ‘특히’도<sup>9)</sup> 수식 대상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므로 체언 수식 부사로 보기 어렵다.

(6) ㄱ.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이규호 2005 재인용)

ㄴ. 완전히 분리를(황선영·이공주 2002 재인용)

ㄷ. 특히 내가 나를 괴롭혔지

특히 {내가} 나를 괴롭혔지 / 특히 {내가 나를 괴롭혔지} / 내가 특히 {나를} 괴롭혔지 / 내가 나를 특히 {괴롭혔지}

이런 유형을 모두 체언 수식 부사로 인정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완전히 이별을, 충분히 식사를...’처럼 ‘어근 + 하다’ 동사가 어근 분리 되었을 때 앞에 놓일 수 있는 파생 부사를 모두 체언 수식 부사로 인정해야 한다. 위치상 명사 앞에 놓였다고 해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위치 제약이 크게 없는 부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해석이라 보인다.

이 외에도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관형사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명

8) 제시된 예문은 ‘완전히 분리를’만 나타나 있으나 ‘완전히’가 명사 ‘분리’를 수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사 ‘분리하다’가 ‘분리를 하다’의 형태로 쓰여 뒤에 오는 ‘하다’가 생략된 상태를 제시한 것일 뿐 명사 수식 기능을 하는 예는 아니다.

9) ‘특히’의 경우 체언 수식 부사로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그 의미에 있어서도 부사로 쓰일 때는 다만 위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히’가 명사 앞에 위치할 경우에도 후행 명사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의미로 해석 가능성이 있다. ‘특히’가 명사 수식을 할 때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를 나타내거나 정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면 체언 수식 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다소, 약간, 잠시, 대량, 대폭, 최근, 최고, 향후’ 등은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 명사와의 사이에 관형격 조사 ‘의’가 삽입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명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절친(인) 정언이, 동생(인) 가은이, 내 조국(인) 대한민국’처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를 연달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멀리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까이 국내에 계시는 여러분’에 쓰이는 ‘멀리, 가까이’도 각각 ‘먼 곳(인)’과 ‘가까운 곳(인)’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한참, 잠시, 오래’ 등이 ‘전’이나 ‘후’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을 예로 들어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도 있는데 ‘한참, 잠시’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짧은 시간’ 등 시간의 의미가 포함된 명사이므로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관형격 조사 ‘의’의 삽입은 불가능하나 ‘한참 전, 잠시 후’ 등은 명사와 명사가 이어진 구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오래’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래전’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외려, 워낙’ 등도 부사적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워낙’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관형사적 쓰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2. 체언 수식 부사의 목록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체언 수식 기능을 가진 부사의 목록으로는 다음 27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체언 수식 부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정도성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어체에 주로 쓰이는 부사 ‘무척, 매우, 몹시’ 등이 체언 수식 부사로 쓰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말뭉치 비교를 통해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추출된 목록으로 미루어 볼 때 체언 수식 부사는 구어체에서 주로 쓰이는 부사들이란 화용적 특성이 있는 것 같다.

## 〈체인 수식 부사의 목록〉

가장, 제일, 극히,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다만, 단지, 단, 달랑, 오직, 유독, 바로, 꼭, 딱, 기껏, 겨우, 거의, 대략, 모두, 총, 꼬박, 또, 반짝 (총 27개)

이들은 부사로 쓰여 용언이나 용언구, 문장 등을 수식할 수 있으며, 체인 앞에 놓여 체인을 수식하면서 관형사의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다.

- (7) 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제일} 천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 {가장, 제일} 많이 팔린 물건부터 놓으세요.  
나. {기껏, 겨우} 월급쟁이 되려고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나' {기껏, 겨우} 도와줬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야?  
다.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미인이시구만  
다'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덜습니다.  
르. 거기 있는 것들은 {대략, 모두, 총, 거의} 스물입니다.  
르' 가격이 {대략, 모두, 총, 거의}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관형사와, 어떤 측면에서는 부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우선 관형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홀로 답문으로 쓰이지 못하나 체인과 결합하여 체언구를 이루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거나 질문의 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체인 수식 부사도 체언구를 이루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관형사의 특성을 보인다<sup>10)</sup>. 반면 체인 수식 부사는 부사로 쓰일 때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부사의 특성을 보인다.

10) 이은섭(2011)에서 체인 수식 부사와 결합한 명사구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있다고 하면서 정도 부사 “아주, 매우, 몹시, 무척, 꽤, 굉장히, 정말, 진정” + 부자’ 구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몹시, 무척’ 등이 체인 수식 부사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지 체인 수식 부사와 체인의 결합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은섭(2011: 315) 참고.)

- (8) ㄱ. 어제 친구한테서 {새, 현} 옷을 받아왔어  
 ㄱ'. a. 어제 친구한테 옷 받았어? - b. 응, {\*현, \*새}  
 ㄱ". {현, 새} 옷을/옷이/옷에/옷으로……  
 ㄴ. 그 분은 {정말, 너무, 아주, 진짜, 되게} 마음씨가 곱다 / 부자야.  
 ㄴ'. a. 그 분이 마음씨가 고와? - b. 응, {정말, 너무, 아주, 진짜, 되게…}  
 ㄴ". a. 그 분은 부자야? - b. 응, {정말, 너무, 아주, 진짜, 되게…}  
 ㄴ"". {정말, 아주} 부자가/부자를/부자에게/부자로서…  
 ㄷ. {기껏} 도와줬더니 / {단} 도와줘야 해, {기껏} 공무원인데/ {단} 하  
 나만 있다  
 ㄷ'. a. 도와줬어? / 도와줘야 해? - b. 응 {\*기껏, \*단 }  
 ㄷ" a. 공무원이야? / 하나만 있어? - b. 응 {\*기껏, \*단 }  
 ㄷ"". {기껏} 공무원이/공무원을/공무원에게/공무원으로…

우선 관형사는 위의 (8ㄱ~ㄱ")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홀로 답문으로 쓰일 수가 없으며 꼭 피수식어인 체언과 결합해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언구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체언 수식 부사는 부사로 쓰일 때의 특성에 따라 독립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피수식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관형사와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ㄴ~ㄴ")의 경우는 부사로 쓰일 때 독립성을 가지던 정도부사들은 체언 수식 부사로 쓰일 때도 독립성을 가지고 홀로 답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ㄷ~ㄷ")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부사일 때 독립성을 갖지 못했던 것은 체언 수식 부사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홀로 쓰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모두 (ㄴ"", ㄷ")처럼 피수식어인 체언과 결합하여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 3. 체언 수식 부사의 유형

이 체언 수식 부사들을 의미에 따라 나누면 우선 후행하는 명사를 강조하

는 것과 숫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 지속에 대한 인식의 용법으로 나누어진다. 강조 용법으로는 상태나 위치, 시간의 정도를 강조하는 것,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강조하는 것, 일정 대상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정도성은 극단, + 정도성, -정도성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숫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어림과 합산, 첨가로 나누어진다.

1. 강조 용법

1) 정도성 강조

- 극단 : 가장, 제일, 극히
- + 정도성 :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2) 한정성 강조 : 다만, 단지, 단, 달랑, 오직, 유독

3) 지정성 강조<sup>11)</sup> : 바로, 꼭, 딱

4) 미흡성 강조 : 기껏, 겨우

2. 수에 대한 인식

- 1) 어림 : 거의, 대략    2)합산 : 모두, 총, 꼬박    3)첨가 : 또

3. 기타. - 시간 지속에 대한 인식 : 반짝

이들 체언 수식 부사들은 결합 가능한 체언의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강조적 용법에서 정도성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예들은 모두 정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체언, 즉 일정 상태를 나타내는 체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들이 일반 명사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 (9) ㄱ. {가장, 제일, 극히} 부자 / 내부 / 명청이 / 소량 / 초기
- ㄱ'. {\*가장, \*제일, \*극히} 가방 / 창문 / 업무 / 하늘...
- ㄱ". {\*가장, \*제일, \*극히} 하나 / 열 명 / 혼자 / 삼 일...

11) 이금희(2014)는 지정성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로 부연의 ‘소위, 이른바, 곧’과 단정의 ‘바로, 오직, 딱, 꼭, 꼭, 단지, 다만’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소위, 이른바’는 체언 수식 부사로 보지 않고 단정의 의미는 지정과 한정으로 나누었다.

ㄴ.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부자 / 내부 / 명칭이 / 소량 / 초기

ㄴ'.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가방 / 창문 / 업무 / 하늘…

ㄴ".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하나 / 열 명 / 혼자 / 삼 일…

이와는 달리 강조 용법 중 한정성이나 지정성을 강조하거나 미흡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 체언 수식 부사는 정도성 체언과 결합이 불가능한 반면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비롯해 일반 명사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혹은 이들이 섞여 쓰인 표현과 결합이 가능하다.

(10) ㄱ. {\*단지, \*단, \*오직, \*달랑, \*유독} 부자는 어떤 습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ㄱ'. {단지, \*단, 오직, 달랑, 유독} 너만 찬성한다./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ㄱ". {단지, 단, 오직, 달랑, 유독} 하나가 마음에 걸린다.

ㄴ. {\*바로, \*꼭, \*딱} 부자라도 걱정은 있기 마련이다.

ㄴ. {바로, 꼭, 딱} 너만 할 때의 일이야 / 여기쯤이지.

ㄴ" {바로, 꼭, 딱} 1999년의 일이야.

ㄷ. {\*기껏, \*겨우} 부자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ㄷ' {기껏, 겨우} 월급쟁이 되려고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ㄷ". {기껏, 겨우} 30년 살고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수식 부사는 당연히 수와 관련된 체언과만 결합 가능할 뿐 정도성이 있는 체언이나 일반 체언과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11) ㄱ. {거의, 대략, 모두, 총, 꼬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ㄴ. 음식은 {거의, 대략, 모두, 총} 백 인분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ㄷ. {또} 한 번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ㄷ. {\*거의<sup>12)</sup>, \*대략, \*모두, \*총, \*꼬박, \*또} 부자 / 미인 / 가방 / 너…

시간 지속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 ‘반짝’은 행위나 현상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있는 행사나 현상을 나타내는 체언과만 결합이 가능하다.

(12) ㄱ. {반짝} 할인/이벤트/추위/세일/효과...

ㄴ. \* {반짝} 생활/옷차림/동생...

이들을 결합 체언의 성격별로 정리하자면 정도성을 강조하거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는 상대성을 가진 체언, 짧게 끝날 수 있는 상황과 결합 가능한 반면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과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정성이나 지정성, 미흡성을 강조하는 체언 수식 부사는 정도성 체언과 결합이 불가능한 반면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비롯해 일반 명사나 수를 나타내는 체언 혹은 이들이 섞여 쓰인 표현과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는 수를 나타내는 체언과 결합한다.

#### 4.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

다음으로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금희

---

12) 그런데 ‘거의’의 경우 일반 명사와 결합하여 ‘체언 + 이다’ 앞에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체언을 수식하는지 ‘체언+이다’ 구성을 수식하는지에 대해 관점이 달리 나타날 수가 있다.

예) ㄱ. 집이 거의 마굿간이구만    ㄴ. 거의 죽음이지 뭐.

ㄷ. 일이 마칠 때쯤이면 거의 시체야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거의’는 후행 체언과 ‘아주 유사한 상태’라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완전히 체언인 ‘마굿간, 죽음, 시체’ 등을 수식한다기보다는 ‘마굿간이다, 죽음이다, 시체이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 체언’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어렵다.

(2014)에서는 체언수식부사의 발생 원인을 인접성과 의미 관련성에서 찾고 있다. 부사의 자유로운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체언류와도 인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후행 체언과 의미적 관련성으로 인해 수식이 가능해졌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인접성과 의미 관련성이 이유라면 부사일 때와 체언 수식부사일 때의 의미에 차이를 보이는 예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겨우’가 부사로 쓰일 때는 ‘어렵게 힘들여’의 의미 기능을 하는 데 비해 수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그 수나 대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작, 기껏해야’와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한다. 만약 인접성과 의미 관련성을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성이나 의미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인접성이나 의미 관련성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 기능을 획득한 부사와 그렇지 못한 부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부사가 어떠한 속성으로 인해 인접성과 의미 관련성이 획득되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규호(2008)에서는 부사는 용언이나 부사를 비롯해 체언, 관형사, 지정사구, 절,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법 단위를 수식하므로 용언 수식성과 함께 광범위한 체언수식성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사의 체언수식성은 본래적 속성은 아니나 용언, 조사, 접미사의 생략, 어순 바꾸기, 어근 분리 현상에 의해 체언 수식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생략이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이라 볼 수는 없다. 우선 접사의 생략과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자. 광고나 신문 헤드라인 등 압축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 용언의 어근만으로 그 의미가 통할 수 있으면 ‘하다, 되다’ 등을 생략하고 어근만을 쓰는 경우가 많다.

(13) ㄱ. 판타지오, 오후 갑자기 22%대 급등.

ㄴ. 000, 문제 있다면 철저히 조사.

그런데 이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부사는 명사형 어근 앞에 그대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런 접사의 생략은 신문 기사나 광고 등에 자주 드러

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지면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표현은 쓰이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언중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드러나는 형태와 부사의 수식 대상에 대한 판단은 달리 해야 옳을 것이다. 단순한 접사의 생략은 생략 성분의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체언 수식 부사로 보기는 어렵다<sup>13)</sup>.

(14) 대폭 하락(하다), 돌연 사퇴(하다), 무사<sup>14)</sup> 귀환(하다)

다음으로 이규호(2008)에서는 부사 수식을 받는 용언이 생략되면서 용언을 뒤따르던 체언을 부사가 직접 수식을 받거나, 명사가 조사 생략에 의해 부사로 바뀌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 (15) ㄱ. 멀리(에 있는) 해외에 계신, 꼬르륵(하고) 소리가 난다, 너무 (잘생긴) 미남  
 ㄴ. 멀찌감치(에) 산더미 같은 호랑이가, 최고(로) 150밀리의 많은 비가, 다소(의) 차이가..

그러나 (15ㄱ)에서 ‘멀리에 있는 해외’라는 표현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며 ‘미남’의 의미 속에 ‘잘생겼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생략된 표현으로 보는 관점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15ㄴ)에서도 ‘멀찌감치’는 관형사로 쓰이는 예는 없으며, ‘최고’나 ‘다소’의 경우 조사 ‘로’나 ‘의’가 결합 가능하고

13)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은 이 글 5~6p에 제시하였다. 이런 유형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어근인 명사에 있기 때문에 접사 ‘하다’나 ‘되다’가 생략된 채 노출되더라도 언중들은 생략된 부분을 복원해 용언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4) 그리고 이규호(2008)에서는 ‘무사 귀환’의 경우 접미사 ‘히’가 생략되어 부사로 전성한 ‘무사’가 동작명사 ‘귀환’을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설명으로 보인다. ‘무사’가 부사로 전성한 것이 아니라 ‘무사히/무사하게 귀환하다’에서 부사로 기능을 나타내는 ‘-히, -하게’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들은 언어에 관계에 의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예들은 ‘정밀 분석, 쾌속 발전, 급속 추진...’ 등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선행 명사는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명사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최고로’와 ‘최고’의 수식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생략으로 보았을 때 수식 대상의 변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이 외에 정도성을 가진 한자어에 접두사 ‘최(最)가 결합한 최고/최저, 최대/최소, 최장/최단, 최다, 최신 등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도 모든 경우 뒤에 ‘의’가 결합되지는 않으므로 단순 생략으로 보기 어렵다. ‘다소(\*의)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다소(\*의) 정색을 하고, 다소(\*의) 오해를 했으나’ 등에서는 부사로만 쓰이지 ‘의’와 결합해 쓰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순을 바꾸어 ‘오해를 다소 하다, 다소 이해해 주십시오’ 등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순 바꾸기’와 ‘어근 분리현상’도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규호(2008)에서는 주로 ‘체언 + 부사’의 서술 한정 구성에서 어순 교체가 일어나 ‘부사 + 체언’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은행일이 노랑게’가 ‘노랑게 은행일이’로, ‘호박이 줄줄이’가 ‘줄줄이 호박이’로 변하는 현상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부사 + 체언’ 구성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없다. 그리고 어근 분리 현상 또한 수식 대상은 여전히 ‘N+을/를 하다’라는 용언구이며,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sup>15)</sup>

이 글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의 유형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보고 각 유형별로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상태나 위치, 정도성을 강조하는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금희(2014)의 논의를 보면 부사가 구에 선행될 경우 후행 서술구를 수식할 수도 있으나 재구조화를 일으켜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재구조화의 기제는 후행 명사의 의미에 [정도성]의 의미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16)</sup>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했다.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 분석은 이규호(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피수식어인 명사항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서정수(1971)에서는 정도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적 서술어는 ‘부자, 멧쟁이, 바보’처럼 ‘상태동사 + 명

- (16) 그곳에는 부자가 [[아주] 많다] - [아주 [부자가 많다]] - [[아주 부자]가 많다]

정도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그 체언이 상대성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들 체언을 ‘형용사 + 관형형 어미 + 체언’의 형태로 풀어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는 모두들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재구조화 과정에는 후행 명사가 [+정도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구조화의 과정을 좀 달리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말에서는 ‘관형어 + 체언’ 구성을 한 단어인 명사로 나타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자’는 ‘미인’이라는 명사로, ‘부유한 사람’은 ‘부자’로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로 대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부사 + [관형어 + 체언]] ⇒ 부사 + {체언( >관형어 + 체언)}”의 변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사의 수식을 받던 ‘관형어 + 체언’의 구조가 ‘체언’으로 대치되면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 (17) 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 아주 {미인}을 만났다.  
 나. 되게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 되게 {구두쇠}는 아닌 것 같아.  
 다. 제일 {겉이 많은 사람}이면서 왜 그랬대? ⇒ 제일 {졸보}면서 왜 그랬대?  
 라. 극히 {적은 양}만 넣어도 죽어 ⇒ 극히 {소량}만 넣어도 죽어

이런 식의 대치는 대화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

사로 분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기술했으며, 김선희(1985), 홍사만(2002)에서도 체언에 [+정도성]이란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8) ㄱ.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을 거야  
 - 아주 부자들도 다 걱정은 있기 마련이야  
 ㄴ. 너무 아껴대는 사람은 다들 싫어하겠지?  
 - 그렇지 너무 짠돌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ㄷ. 정말 맛있는 식당 소개 좀 해 봐  
 - 되게 맛집은 아닌데 먹을 만한 곳은 있어.

이때의 정도성이란 명사의 사전적 의미에서 비롯되는 속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화용적 의미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저 자식은 날 아주 물주로 알아, 나는 아주 햇바지로 본다니까,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아주 돌이네 돌.’ 등에서 ‘아주’가 수식하는 체언은 [+정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기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체언은 정도성이 없기 때문에 체언 수식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관형어 + 체언’ 구성이 비유적 의미를 담은 체언으로 바뀌면서 앞에 놓여 있던 부사의 수식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는 체언 수식 부사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수를 나타내는 체언과 결합하는 체언 수식 부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들을 들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단일성, 지정성, 미흡성을 강조하는 것들도 모두 수와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듯 수를 나타내는 체언에 부사의 수식이 빈번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들이 수식하는 대상은 수사<sup>17)</sup>나 ‘수 관형사 + 명사’이다.

- (19) ㄱ.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 {단 하나}가/를/의/로...  
 ㄴ. 달랑 학생 다섯이 수업을 신청했다. - {달랑 학생 다섯}이/을/만/의...  
 ㄷ. 거의/총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 {거의/총 3시간}을/이/만...  
 ㄹ. 기껏/겨우 30만원이 오늘 매출입니다. - {기껏/겨우 30만원}이/을/

17) 수사 중 서수사는 체언 수식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양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체언 수식 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만/에...

수사나 수관형사는 지시 관형사 외에 다른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수 자체에 일정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관형사나 성상 부사의 수식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수를 접했을 때 그 수량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누구나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관형사로 드러내기는 힘들다. 지시 관형사와 수 관형사를 제외하면 성상 관형사만 남는데 이는 대상의 속성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만 하며, 수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 오지 못한다는 위치적 제약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형사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자세는 주로 부사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수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인식도 부사어, 혹은 부사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명사나 명사구의 경우는 관형어나 관형어구가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량의 경우는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사어로 수식을 받는 것 같다. 아래의 예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수식하는 데 부사어나 부사구가 쓰인 예들이다.

- (20) ㄱ. 많게는/\*많은 20개에서 적게는/\*적은 10개 정도 팔아요
- ㄴ. 길게는/\*긴 한 달 정도 집에만 있기도 해요
- ㄷ. 모두 합해서/\*합한 30 마리 정도 될 거예요.
- ㄹ. 유일하게/\*유일한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듯 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판단은 부사적 용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사를 통해서도 수사나 ‘수 관형사 + 명사’ 구성을 수식할 수 있다. 수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수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과 합산, 첨가의 의미 외에 이 숫자밖에 없다는 한정이나 지정, 그 수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화자의 인식 등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위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비롯해 일반 명사와 결합하는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명사들과 결합 가능한 예로는 지정성이나 한정성, 미흡성, 그리고 시간 지속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체언 수식부사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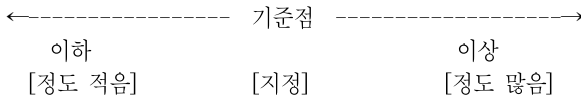
이 중 한정성과 지정성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의 특성은 대상의 범주를 한정 혹은 지정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18)</sup> 이 글에서는 지정성을 가진 체언 수식 부사는 ‘바로, 꼭, 딱’을, 한정성을 가진 체언 수식부사로는 ‘다만, 단지, 달랑, 오직, 유독, 단’을 제시했다.

한정성의 의미 기능을 하는 ‘다만, 단지, 달랑, 오직, 유독, 단’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이들 체언 수식 부사가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여 그 수밖에 없다는 한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 (21) ㄱ. {다만 사과}라도 네가 나한테 준 적이 있어?  
 ㄴ. {달랑 신발}만 두고 가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ㄷ. 저는 {오직 가방}, 그것도 명품 가방에만 관심이 있어요.

위의 예 (21 ㄱ~ㄷ)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 명사와도 결합이 가능한데 명사에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가 결합되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의 예들은 그대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어렵다. 이들이 다양한 문장 성분

18) 이금희(2014)에서는 정도성 외에 지정성도 체언 수식 부사의 후행 체언이 가지는 의미적 특질로 지적하면서 정도성과 지정성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정도성과 지정성의 관계



그러나 ‘바로, 딱, 꼭’ 등이 가지는 강조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우며 ‘바로 위/아래’처럼 정도성을 가진 체언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결합되는 체언에 정도성이 없는 경우는 모두 지정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시어나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한다.

- (22) ㄱ. {다만 사과 한 번}을/이/으로/만/이라도…  
ㄴ. {달걀 애 하나}가/를/만/로/라도…  
ㄷ. {오직 그 사람}이/만/을/에게…

마찬가지로 지정성을 나타내는 ‘바로, 꼭, 딱’도 아래의 (ㄱ, ㄴ)에서처럼 ‘명사+이다’와 결합은 자연스러운 반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는 쓰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명사에 바로 결합하는 ‘바로’는 완전히 체언 수식 부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시어나 수, 위치,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 경우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 (23) ㄱ. 내가 찾던 것이 바로/?딱/?꼭 {책, 가방, 가위, 마우스}였다  
ㄴ. \*바로/\*딱/\*꼭 {책, 가방, 가위, 마우스}을/를 좀 가지고 오세요.  
ㄷ. 바로/딱/꼭 그 {책, 가방, 가위, 마우스}을/를 좀 가지고 오세요.  
ㄹ. 바로/딱/꼭 {여기, 저기, 그것, 너}만 한 방/크기/아이였지.  
ㅁ. 바로/딱 {앞, 뒤 / 오늘, 내일 / 하나}에 있어/이 내 생일이야./가 있어

그러므로 지정성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는 지시대명사나 지시 관형사와 결합한 명사구, 위치, 시간, 수를 나타내는 체언을 한정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지시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도 기존의 관형사로는 수식이 불가능하다. 관형사의 순서를 따져보면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 성상 관형사의 결합 순서를 가지므로 지시 관형사 앞에 놓여 이를 수식할 수 있는 관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나 수 관형사와 결합한 명사의 수식과 마찬가지로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낼 때도 부사를 동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미흡성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가 일반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지시나 수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후행 명사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기껏, 겨우’에 후행하는 명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명사이며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명사라 하더라도 화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고 하찮게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객관적인 대상은 아니다. 이는 후행 명사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명사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형사로는 나타낼 수 없고, 명사 자체도 화자에 의해 부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4) ㄱ. 기껏/겨우 (돈도 못 버는/고생만 하는) 공무원 되려고 그리 고생한 거야?  
ㄴ. 기껏/겨우 (수준 낮은) 지방대학 가면서 뭐가 좋다고…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현상이 생긴 원인을 정리해 보자면 후행 체언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 부사의 경우 ‘관형어 + 명사’의 형태로 쓰이던 명사구가 하나의 명사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관형어를 수식하던 부사가 계속해서 대체된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성이나 한정성, 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가 생겨난 원인은 이들이 수식하는 피수식어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피수식어는 수사나 ‘수관형사 + 명사’, 지시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 + 명사구’가 체언의 성격을 지나나 일정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이나 성격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관형사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자의 태도나 자세를 드러내는 부사를 동원하여 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비

못해 품사적 범주, 피수식어인 체언의 유형, 의미·통사·화용적 특성과 기능,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체언 수식 부사의 목록을 규정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언 수식 부사의 각 유형별 특징,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부사적 용법과 관형사적 용법으로 모두 쓰여야 한다는 것을 체언 수식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 기존 연구에 제시된 체언 수식 부사 목록 중 부사 혹은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휘들을 제외시키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제일, 극히, 아주, 너무, 되게, 진짜, 꽤, 비교적, 다만, 단지, 단, 달랑, 오직, 유독, 바로, 꼭, 딱, 기껏, 겨우, 거의, 대략, 모두, 총, 꼬박, 또, 반짝’ 등 총 27개의 체언 수식 부사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상 목록들을 의미와 피수식어를 기준으로 강조적 용법, 수에 대한 인식, 기타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눈 뒤 강조적 용법을 다시 정도성 강조, 한정성 강조, 지정성 강조, 미흡성 강조로 하위 유형화 하였고, 시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용법도 어림, 합산, 첨가로 하위 분류하여 이들이 결합하는 체언의 특성을 살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체언 수식 부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폈는데 정도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수식을 받던 ‘관형어 + 체언’의 구조가 ‘체언’으로 대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정성이나 한정성, 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체언 수식 부사가 생겨난 원인은 이들이 수식하는 체언이 모두 수나 지시어이기 때문이다. 수사나 ‘수관형사 + 명사’, 지시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 + 명사구’가 체언의 성격을 지니나 일정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이나 성격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관형사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자의 태도나 자세를 드러내는 부사를 동원하여 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김경훈, 「국어의 부사수식연구」, 『국어연구』 37집, 서울대 국어연구회, 1977.
- , 「국어 수식어에 대한 관견」, 『개신어문연구』 12집, 개신어문학회, 1995, 21-44면.
- 김민수, 『신국어학』, 일조각, 1986.
- 김원경, 「체언 수식 부사의 범주와 자질」, 『언어학연구』 29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3, 27-52면.
- 김은영, 「체언 수식 부사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선희,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 187-1, 한글학회, 1985, 123-139면.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2012.
- 목정수·연재훈, 「상징부사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집, 한국어학회, 2000, 89-118면.
- 문숙영, 「한국어의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87호, 국어국문학회, 2019, 5-53면.
- 문순홍, 「체언 수식 부사 소론」, 『청람어문학』 2집, 청람어문학회, 135-147면.
- 민현식,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10집, 한국어의미학회, 2002, 227-250면.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 서상규,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23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91, 219-266면.
- 서정수,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Ⅱ): 제약부사론」, 『동방학지』 12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1, 197-221면.
- , 『한국어의 부사』, 한국의 탐구 32, 서울대 출판부, 2005.
- 손남익,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1995.
- 왕문용·민현식,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1999.
- 이규호, 「체언 수식 부사: 부사 관형 구성 연구」, 『국어학』 51집, 국어학회, 2008, 3-28면.
- 이금희,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277-310면.
- 이수미 · 김민국, 「새로운 유형의 관형사 설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4집, 한말연구학회, 2009, 165-194면.
- 이은섭,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 『국어학』 61집, 국어학회, 2011, 291-321면.
- 이익섭 · 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임유중,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장영희,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의미학』 8집, 한국어의미학회, 2001, 201-220면.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61.
- 홍사만, 「국어 정도 부사의 피한정어 연구」, 『어문학』 76집, 한국어문학회, 153-176면.
- 황선영 · 이공주, 「구조적 중의성 해결을 위한 명사 수식 부사 연구」, 『한국 인지과학학회 논문지』 13-4, 한국인지과학회, 2002, 43-53면.
- 황화상,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 42집, 한국어학회, 2009, 317-344면.

【Abstract】

## A Study on Adverbs Modifying Nouns

Mok, Jise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catalogue adverbs modifying nouns according to the objective criteria and then classify them. Through this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adverbs modifying nouns and the causes in which adverbs modify substantives will be addressed by category in detail.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discussions, the role or status of the adverbs modifying nouns will be established.

Since adverbs modifying noun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only since the 90s, there have been few accumulated study results. Moreover, since researchers may have different perspectives, significant study results have yet to be achieved. Consequently,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word class category; the classification, meaning and syntax, and the pragmatic applicability and function of the substantive which is the modificand; and the cause in which the adverbs modify the substantives, in addition to the name of 'adverbs modifying nouns'. The root cause of this controversy lies in the inability to catalogue the target vocabularies based on exact conceptual rules and standard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having both adverb usage and determiner usag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basic condition of the adverbs modifying nouns. The vocabularies used only as adverbs or adjectives were excluded from the catalogue of the adverbs modifying nouns suggested in prior studies by applying this, and then remaining adverbs modifying nouns have been cataloged. In addition, for only the vocabularies that can be considered adverbs modifying nouns, the meaning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when they function as adverbs and the meaning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when they function as adjectives were compared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verbs modifying nouns. And then they were categorized based on meaning and modificand,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Finally, the discussion was concluded by contemplating the cause in which adverbs modify substantives by category.

**Key word** : adverb, determiner, parts of speech, the word class conversion, adverbs modifying nouns

이 논문은 2020년 06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7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7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